

金 泰 勳 議員

**“미래를 준비하고, 희망찬 대전건설에
앞장 서겠습니다.”**

중구 제3선거구

중구 제3선거구 김태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대전’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계시는 박성호 시장님, 김신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그동안 고민해 왔던 사안들을 시장님을 비롯한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민선 4기 1년은 대전시민의 복지환경 및 생활여건에 있어서 많은 진전과 발전이 있었던 반면,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많은 난제(難題)들이 산적(山積)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이는 대전의 행복한 미래 건설과 모두가 잘사는 대전 건설을 위해서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모두가 풀어나가야 할 공동의 숙제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대안들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부문입니다.

첫째, 투기과열지구 해제입니다.

2007. 5월 현재 전국 평균 실업률이 3.2%에 이르는 가운데 대전의 실업자 수는 2만 8천명으로, 실업률은 3.9%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률은 57.9%로 전국평균 60.7%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지표들은 대전시의 열악한 지역경제 실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표 1> 전국 실업률과 고용률

구 분	실업자(천명)	실업률(%)	고용률(%)
계	779.1	3.2	60.7
서울특별시	197.4	3.8	60.9
부산광역시	62.8	3.7	56.7
대구광역시	42.4	3.5	57.8
인천광역시	50.9	3.9	59.6
광주광역시	27.0	4.1	56.8
대전광역시	28.4	3.9	57.9
울산광역시	10.9	2.0	59.7
경 기 도	198.2	3.5	60.8
강 원 도	12.8	1.8	59.2
충 청 북 도	14.3	2.0	59.9
충 청 남 도	26.3	2.5	66.9
전 라 북 도	19.3	2.2	60.4
전 라 남 도	14.6	1.6	64.2
경 상 북 도	20.5	1.5	64.8
경 상 남 도	45.5	2.9	61.5
제 주 도	7.7	2.6	68.4

자료: 통계청(2007.05)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최근 들어 대전의 발전과 미래를 좌우할 “자기부상열차 실용화노선 시범사업”,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각종 현안사업들이 줄줄이 “탈락과 무산” 이라는 고배를 마시고 있습니다.

특히 금번 투기과열지구해제 대상지에서 대전이 제외됨으로써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의 회복을 희망했던 대전시민 모두의 열망이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시장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대전의 주택시장은 이미 붕괴직전에 있습니다.

지난 2003년 6월 대전시 전체가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되면서 지난해 초부터 주택 거래량이 큰 폭으로 줄었고, 청약률이 감소하는가 하면, 지난 1년간 주택 미분양률은 4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시는 향후 4년간 서남부 1단계지구, 노은 3지구, 관저 5지구, 학하·덕명·관저 4지구 등에 주택 5만 4천호를 공급할 예정에 있는 등 정부가 걱정하는 투기과열지구와는 거리가 먼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건교부의 투기과열지구 해제 지역에서 대전시가 제외된 것은 “대전시의 정치력 부재”로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앙 정부의 결정은 지역 주택시장 입장에서 볼 때 사망선고나 다름없으며, 그로 인한 주택시장 부실화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아울러 대전 지역경제의 침체가 더욱 고착화되어 갈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시민들은 “우리지역 국회의원들은 어디에 있으며, 대전시는 무엇을 하고 있나?” 하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전지역의 건설경기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대전시의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해 어떤 생각과 대안을 갖고 계신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적극적인 기업 및 투자유치 활동입니다.

대전의 산업구조가 취약한 상황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기업유치 및 투자유치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대전시의 기업 및 투자유치 실적은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대전과 인접해 있는 충남·북의 투자유치 실적을 살펴보면, 충청남도는 이완구 지사가 취임한 이후,

해외투자 유치 건수로는 46건, 금액으로는 11억 6,700만 달러의 외자를 유치해 전국 지자체들 중에서 서울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투자유치 실적을 나타내었습니다.

또한, 충청북도는 민선 4기 출범이후 현재까지 28개 업체에 11조 2,178억원에 달하는 투자유치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충북은 국내 단일규모로는 최대 규모인 8조 7,065억원의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증설을 청주시로 유치하는 등 국내기업 25개 업체에 11조 678억원, 외국기업 3개 업체에 1억 5천만 달러의 유치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대전시의 기업 및 투자유치 실적은 지난해 15개의 외부기업과 5,490만 달러의 투자유치에 그쳐 타 지역에 비해 그 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민선 4기 시작 무렵, 시장께서는 투자통상본부를 신설하는 등 직제와 기구를 개편하여 기업 및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대전시가 유치한 기업 및 투자유치 실적은 대부분 MOU(양해각서)에 그치는 등 그 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대전시는 산업용지가 부족하다는 이
유만으로 외부기업 및 투자유치의 저조한 실적을
무마하려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부족한 산업용
지 탓만 할 것입니까?

시장님! 선진 도시들의 지도자들은 자신을 세일즈
맨으로 칭하면서 외국의 선진기업들을 자기 지역으
로 유치하기 위해 1년 365일 중 반 이상을 외국을
뛰어다니며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
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시장께서는 취임 후 1년 동안 기업 및 투자유치
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으며, 또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어떤 비전과 목표,
전략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형국책사업의 유치입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조
성 및 로봇랜드 조성사업 등은 유치대상지역의 산업
지도를 바꾸고, 미래 성장을 책임질 대형사업들입니다.

<표 2>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 개요

- 단지규모 : 1곳 입지, 2단계로 나누어 30만평 규모에 조성
※ 의약개발센터 10만평(1단계), 연구기관 입주단지 20만평(2단계)
- 투 자 : 약 5조 6천억원('08~'37 / 시설·운영비 1.8조, R&D비 3.4조)
※ 중앙정부·지자체·민간이 적정분담
- 부지선정 : 2008년 상반기
- 기대효과 : 생산증가 82.2조원, 고용창출 38.2만명

자료: 대전시 내부자료(2007.6)

시장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은 2008~2037년까지 약 5조 6천억원이 투자되는 대형사업으로써 약 82조 2천억원의 생산증가 효과와 38만 2천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예상되는 대형사업입니다.

이런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같은 대형국책사업들이 우리 대전지역에 유치된다면 다양한 유무형의 파급효과로 인해 궁극적으로는 대전의 고용 창출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전시는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대형국책사업들을 우리 대전지역으로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형국책사업 유치를 위해 대전시민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한 범시민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아가야 하며, 이를 중앙정부에 전달함으로써 우리 대전시민의 적극적인 유치의지를 대외적으로 피력(披瀝)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 국회의원과 출향인사 등 정치적 역량을 지닌 인사들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지역의 정치적 역량을 키워 나가는 한편,

다가올 대선에 첨단의료복합단지 등의 대형국책사업 대전 유치가 대선 후보자의 공약사항에 적극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대형국책사업 유치를 위해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떻게 추진하실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중구 공동화 해소 문제입니다.

대전시의 지역간 불균형 문제는 둔산 신도심을 중심으로 한 서구와 유성구, 그리고 원도심을 중심으로 한 중구, 동구, 대덕구 간의 불균형 문제로 표현됩니다.

그 중 중구지역은 대전에서도 제일 낙후되어 가고 있는 자치구로서 대전시로부터 정책적 소외감마저 느끼며, 나아가 지역간 갈등의 발생 소지가 가장 높은 지역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구 원도심은 지난 90년대 이후부터 심각한 공동화 현상을 겪어 오고 있습니다.

그간 중구 공동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들이 대전시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지만, 그에 대한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다 보니 중구 원도심 공동화 해결의지는 점차 대전시 정책에서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유성구는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한 첨단과학 도시와 온천을 중심으로 한 관광특구, 그리고, 행정 중심복합도시와의 연계 등으로 특화되어 발전해 나가고 있으며,

서구는 서남부권 개발을 비롯해 대전의 행정, 금융, 문화, 주거의 중심지로서 지속적인 발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동안 중구와 같이 공동화 현상이 심각했던 동구지역은 매년 1만명 이상의 인구가 유출되어 심각한 인구감소 현상을 겪었던 지역이었지만,

최근의 가오지구 개발, 무지개 프로젝트, 캠퍼스 타운 조성사업 등으로 인해 인구가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얼마 전에는 인구 24만명 돌파를 축하하기 위해 축하행사를 펼치기까지 하였습니다.

한편, 대덕구는 1, 2, 3, 4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산업기능 활성화와 계족산, 대청댐 등의 풍부한 천혜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대덕구 소외론을 통해 대전시 개발정책의 최대 수혜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중구는 충청도청 및 유관기관들의 이전에 따른 원도심 일대의 상권 위축이 예상되고 있으며, 보문산 주변일대의 고도제한에 따른 개발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 다른 자치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동화가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전시 미래의 도시발전을 계획하고 있는 『2020년 대전도시기본계획』에서 중구지역의 보문생활권은 중심상업, 위락·문화, 물류·유통의 중심지 기능과 특성화 전략으로 한밭의 상업, 문화의 심장부 역할을 담당하도록 기능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표 3> 생활권별 개발전략

구 분	주 기 능	특 성 화 전 략
신탄진 생활권	산업(공업)첨단산업	2천년대 중부권 산업발전의 중핵지
유 성 생활권	관광, 위락첨단	국제적 종합 관광, 위락의 요람
둔 산 생활권	행정업무	행정중심, 업무, 금융의 중심지
송 촌 생활권	중심상업, 업무, 위락, 교통, 정보	21세기 고도정보화, 교통의 중심지
진 잠 생활권	물류·유통, 주거	중부권 물류·유통의 거점 및 친환경적 전원주거지역
보 문 생활권	중심상업, 위락, 문화, 물류·유통	한밭의 상업, 문화의 심장부

자료: 2020년 대전도시기본계획(2006; 164)

하지만, 이러한 기능들이 중구지역에 제대로 갖추어질지 의문입니다.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상권 위축과 보문산 일대의 고도제한, 그리고 선화은행동의 공동화가 점차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보문 생활권이 어떻게 상업의 중심지와 위락·문화의 중심지가 될 수 있으며, 물류·유통의 중심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현재 중구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 역시 그 실효성이 의문시됩니다. 작년부터 보문산 일대에 플라워 랜드가 조성되고 있지만, 지역 전문가들로부터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근 대전동물원의 경우, 매년 입장객 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운영실적 역시 매년 30억원 이상의 적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뿌리공원은 그 자체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지속적으로 사람을 끌어들이는 교육, 문화, 관광자원으로서의 매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표 4> 대전 동물원 운영실적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5.31
입 장 객	1,146	1,147	1,030	873	940	467
수 입	4,303	4,691	4,668	6,944	7,625	3,687
지 출	6,142	8,699	8,841	10,826	11,013	4,455
수 익	△1,839	△4,008	△4,173	△3,882	△3,388	△768

자료: 대전시 내부자료(2007.6)

이런 상황에서 물리적인 시설투자와 개발로 중구 지역의 공동화를 해결하고자 하는 대전시의 정책은 그 실효성과 효과에 대한 의문마저 들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 의원은 중구의 공동화 현상을 해결하고, 새로운 활력을 찾기 위해 중구 원도심 지역과 보문산 일대의 플라워랜드, 동물원, 뿌리공원을 관광개발 축으로 하는 관광개발특구 지정을 제안합니다.

대전시는 특구지정을 통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지역으로 적극 이끌어 내는 한편, 그 시너지 효과를 원도심 지역으로 확산함으로써 중구 전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중구의 안영동 일대는 2003년부터 경륜장 후보지로 지정되어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다가 경륜장 사업이 무산되어 버린 상태입니다.

이러한 대전시의 무책임한 정책약속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극심한 좌절감과 허탈감에 빠져 있으며, 이 지역에는 원망과 원성만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안영동 지역 주민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인데,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성구 송강동의 농업기술센터 이전과 관련해 작년에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전 대상지들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한 결과, 중구 목달동이 최적지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의 반대로 인해 이전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구지역 주민들은 당초 결정된 사항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대전시의 행정력에 불신감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역 주민들은 당초의 결정대로 중구 목달동으로 농업기술센터를 이전할 것을 적극 바라고 있는데, 이에 대해 시장께서 갖고 계신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2012년말 충남도청 신도시 건설이 완료되어 충남도청이 이전하게 되면, 충남경찰청과 충남교육청이 함께 이전하게 되어 있어, 중구 원도심의 공동화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아직 까지도 이에 대해 대전시의 대책마련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현재 중구 주민들은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공동화 문제를 걱정하면서 대전시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충남도청이 이전할 시점에 맞춰 대전시가 중구 공동화 대책을 마련한다면 이미 때는 늦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전시는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중구 공동화 문제 해결을 위해 지금부터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때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육재정 지원입니다.

다가올 21세기 대전의 미래 발전은 우수한 인력의 육성과 확보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전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 청소년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역군을 육성하고, 담당해야 할 대전시 교육청의 예산은 너무나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2007년도 대전시 교육청 예산은 약 1조 2백억원으로, 이 가운데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71%나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 가운데 지방채 상환경비, 예비비, 기본 운영비 등의 경직성 경비가 약 14.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 교육청 예산 가운데 인건비와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순수 교육사업 경비는 약 14.76%에 그치고 있어 원활한 교육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사업예산이 너무나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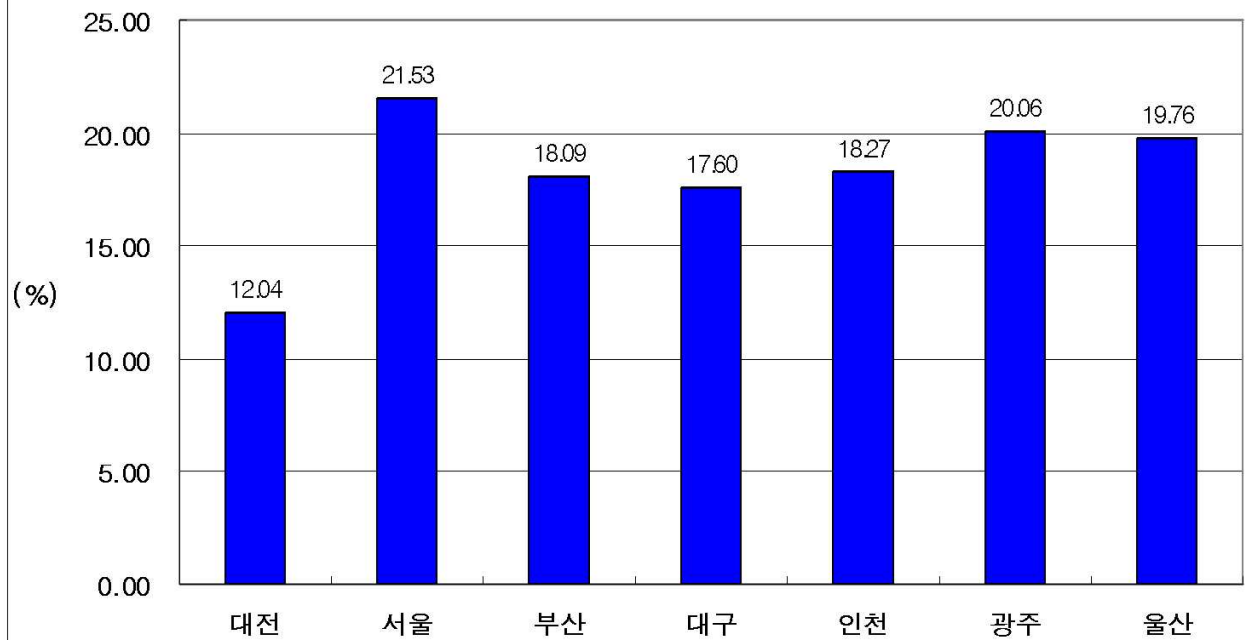
이러한 사업비 비율은 전국 7대 광역시 중 최하위 수준으로 우리 대전시와 도시규모가 비슷한 광주 18.30%, 울산 18.23%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표 5> 7대 광역시 전체 예산중 사업비 편성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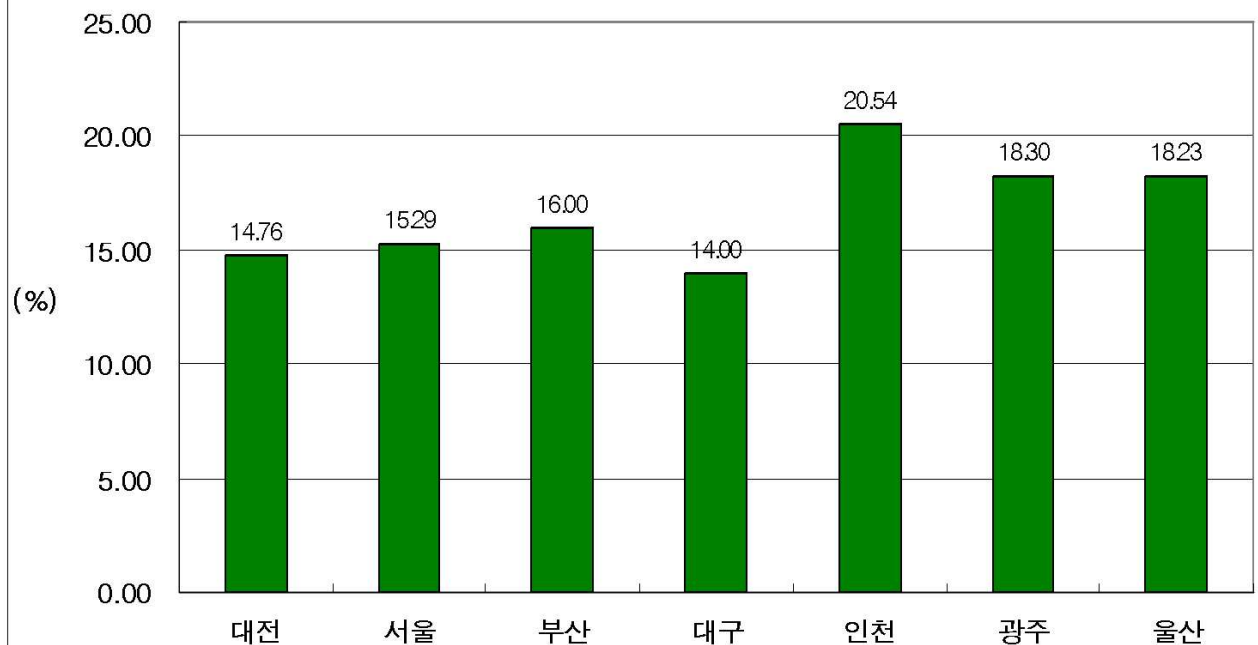
시 도 명	'06년도	'07년도	비 고
대 전	12.04%(7)	14.76%(6)	
서 울	21.53%(1)	15.29%(5)	
부 산	18.09%(5)	16.00%(4)	
대 구	17.60%(6)	14.00%(7)	
인 천	18.27%(4)	20.54%(1)	
광 주	20.06%(2)	18.30%(2)	
울 산	19.76%(3)	18.23%(3)	

참고: ()는 순위를 뜻함.

2006년 사업비 편성비율



2007년 사업비 편성비율



<표 6> 7대 광역시 사업비 편성내용

시도명	구분		06년도		07년도		비고
			예산액(천원)	비율(%)	예산액(천원)	비율(%)	
대 전	예산총액		931,388,103		1,025,028,741		
	사 업 비	교 육 사 업 비	83,793,532	9.00	115,342,673	11.25	
		학교시설사업비	28,264,197	3.03	35,788,151	3.49	
		기타시설사업비	87,480	0.01	207,670	0.02	
		계	112,145,209	12.04	151,338,494	14.76	
서 울	예산총액		5,479,930,538		5,472,014,644		'07는 본예산
	사 업 비	교 육 사 업 비	492,480,322	8.99	437,000,180	7.99	
		학교시설사업비	670,512,215	12.24	390,134,251	7.13	
		기타시설사업비	16,620,630	0.30	9,265,000	0.17	
		계	1,179,613,167	21.53	836,399,431	15.29	
부 산	예산총액		2,228,307,766		2,328,716,576		
	사 업 비	교 육 사 업 비	221,000,823	9.92	241,844,010	10.39	
		학교시설사업비	168,546,966	7.56	122,275,707	5.25	
		기타시설사업비	13,660,815	0.61	6,185,353	0.27	
		계	403,208,604	18.09	370,305,070	16.00	
대 구	예산총액		1,574,724,421		1,553,796,293		'07는 본예산
	사 업 비	교 육 사 업 비	133,953,102	8.51	126,900,499	8.17	
		학교시설사업비	138,327,296	8.78	88,568,507	5.70	
		기타시설사업비	4,911,142	0.31	1,076,998	0.07	
		계	277,191,540	17.60	216,546,004	14.00	
인 천	예산총액		1,738,968,199		1,852,441,286		
	사 업 비	교 육 사 업 비	176,288,299	10.14	169,369,529	9.14	
		학교시설사업비	120,899,647	6.95	205,088,789	11.07	
		기타시설사업비	20,604,557	1.18	6,076,994	0.33	
		계	317,792,503	18.27	380,535,312	20.54	
광 주	예산총액		990,276,397		1,035,740,533		
	사 업 비	교 육 사 업 비	97,124,234	9.81	109,590,985	10.58	
		학교시설사업비	96,978,327	9.79	77,344,530	7.47	
		기타시설사업비	4,533,392	0.46	2,568,462	0.25	
		계	198,635,953	20.06	189,503,977	18.30	
울 산	예산총액		760,662,090		805,756,318		
	사 업 비	교 육 사 업 비	80,011,568	10.52	71,766,444	8.91	
		학교시설사업비	42,004,296	5.52	73,677,089	9.14	
		기타시설사업비	28,263,621	3.72	1,419,875	0.18	
		계	150,279,485	19.76	146,863,408	18.23	

자료: 대전시교육청 내부자료(2007)

참고: '05, '06년도는 최종예산액, '07년도는 1회추경예산액 기준, 단 '07년도 중 서울과 대구는 본예산 기준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타시·도의 교육예산 역시, 우리 대전시와 비슷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교육사업에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을 볼 때, 본 의원은 우리지역 교육사업에 대한 대전시의 무관심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 대전의 미래를 위해 나무심기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자원이 부족한 국가에서 특히, 과학과 교육도시를 표방하는 대전시에서 미래를 위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나무심기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중앙정부의 교육재정 지원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지역의 인재양성을 위해 대전시 차원에서의 보다 적극적인 교육투자와 정책적 배려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열악한 교육재정을 교육청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대전의 미래 교육대계를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대전시의 적극적인 교육투자와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들과 시장께서 갖고 계신 대전시 교육대계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 동료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이 자리를 통해 제안한 내용들이 지역의 발전, 더 나아가 대전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기를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